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을 위한 연구

김 갑 종*

〈목 차〉

I. 서론	1. 평생 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
II. 지식기반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	2. 평생 교육센터사업
1. 교육 외적 요인	V. 결론
2. 교육 내적 요인	참고문헌
III. 평생학습 사회실현	Abstract
IV. 평생학습 사회실현 기능과 역할	

I. 서 론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가오는 미래사회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것보다 그 폭이나 깊이를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변동의 주기도 상당히 빨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미래사회가 전개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이미 Toffler¹⁾는 1980년 『제3의물결』에서 제1단계는 물질에 의존하는 농업사회로, 제2단계는 에너지에 의존하는 공업사회로, 제3단계는 정보에 의존하는 정보사회로 파악되고 있다. 제3파도의 문명기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이

*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 교수

1) Toffler, Alvin(1980). *The Third Wave*. New York : Bantam Books.

결코 고갈되지 않는 원재료인 정보라고 보았다.

대량의 정보가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가 권력의 원천이며, 권력이동의 핵심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강조하였다. Toffler와 마찬가지로 사회발전 단계론자인 Bell²⁾은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을 공학의 발전면에서 사회발전 단계를 구분하여, 산업전 사회를 채취사회로 산업사회를 기계공학을 이용한 조립사회로 탈산업사회를 지적공학을 활용한 가공(processing)사회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3단계의 사회를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고 하면서 서비스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문적·기술적 직업의 우위, 종래의 경험주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우위라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Drucker도 제2차세계대전 후인 제3단계의 사회를 ‘탈자본주의사회’라고 정의하면서 이 사회의 특징을 ‘지식사회’, ‘조직사회’, ‘지식근로자 사회’라고 보았다. 그가 그의 저서를 「탈자본주의사회」라고 이름붙인 주된 이유는 이전 자본주의사회가 토지, 노동, 자본에 의해 움직여진 자본주의라면, 포스트 자본주의의 생산요소 또는 생산수단은 더이상 자본도 토지도 노동도 아닌 지식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즉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전통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은 오히려 제약이 되고 그 대신 지식이 단 하나의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에서 지본주의(知本主義)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는 포스트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 도전은 지식 노동, 지식노동자의 생산성이 될 것이며, 정보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곧 지본주의라고 예견하였다.³⁾

이들은 역사 변천의 원천을 가치의 발견, 그 중에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였다는 데 있다. 미래사회를 ‘탈산업사회’, ‘탈자본주의사회’, ‘제3의 물결’, ‘정보사회’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회변화의 단계를 채취사회에서 농업사회로의 변화 단계에서는 토지의 가치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단계에서는 에너지의 가치를, 공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단계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기본문제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존의 해결이었다면, 산업사회에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중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부를 산출하였다. 여기에는 과학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생산체제의 성립과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요인은 표준화된 인간의 삶에 있었다.

2) D. Bell(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 Basic Books.

3) Peter F. Drucker(1994),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 Harper Collins Publishers.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사회는 비대량화·비대중화를 추구하는 전문화, 개별화, 다양화와 같은 사회적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즉 미래사회에서는 사회변화의 원천 및 가치 창출의 원천이 산업사회의 물질과 에너지에서 지식과 정보로 전환된다. 따라서 미래 사회는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규격화된 제도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탈대중화를 통해 사회 각 부문의 다양성과 개인의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y)이 요구되는 다원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회인 것이다. 미래 사회는 단순히 지식을 주된 생산수단으로 하는 단순한 정보사회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식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식중시 경향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최근 Thurow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의 원천은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지식의 통제라고 주장하면서, Bill Gates는 천연자원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에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단절적 균형의 신세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이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제1원리는 절약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잡아 투자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논의는 OECD와 World Bank에 의하여 집약되고 있다. OECD는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고용과 성장 및 지식경제,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의 IMF관리체제에 있게 된 원인도 지식의 격차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OECD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요소투입 위주 경제, 자원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OECD-세계은행 지식경제 세미나」에서도 지식기반경제의 경향으로서 지식기반생산품 비율의 증대, 지식기반무역의 증대, 연구·개발 및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 유형의 증대, 노동력 기술 향상 등을 들고 있다.⁵⁾ 그렇다면 왜 이처럼 지식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가? 이것은 곧 지식기반경제의 출현배경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학기술 진보의 속도 증가, 국제경쟁의 심화, 그리고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라는 4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과거의 기술혁명들과는 비교할 수

4) 김영철,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9.

5) D. Malkin(1999), The Knowledge-Based Economy Trends and Policy Challenges, In OECD. OECD-World Bank Seminar on Knowledge-based Economy, Seoul: Mimeo.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경제·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동인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 전문지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제고,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의 특이성에 대한 인식 증대,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비용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⁶⁾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디지털시대,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토지·자본·노동에 기초한 자원기반경제에서 지식이 생산과 성장의 기본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의 생산·분배·소비는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경제에서 활동할 지식 근로자의 양성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이 높은 부가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그러면서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매우 짧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끊임없는 자신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식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력 일꾼은 지식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지식근로자의 생존 능력은 평생 학습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여 성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평생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자극·격려·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생성·소멸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21세기에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이 국가의 국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은 새로운 천년의 필요조건으로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학습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자발적인 학습력은 각 개인 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의 인적, 물적 원천을 찾아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에 의해 학습을 하고, 학습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해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 증진하는 것은 국민 각자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게 함으로서 국민 각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며 나아가 한 국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래 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검토해 보고, 평생학습사회

6) L. Prusak(1998), Why Knowledge, why now?. In Dale Neef. (ed.), The Knowledge Economy, Boston, MA : Butterworth-Heinemann.

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인 각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Ⅱ.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

미래 사회는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다. 미래사회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사회이고, 위협의 요소가 편재되어 있는 불안정한 사회이며, 사회의 각 부문간 또는 부문내의 분화가 심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는 복잡한 사회이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인 지식, 가치, 태도만을 가지고 이러한 사회에 대처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한번 획득한 지식은 계속 수정·보완·보충하여야 하며 한편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부단히 흡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사회로 교육시기,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담당자,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자체가 학습의 터전이 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평생학습은 삶의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라 삶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또한 평생학습은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이다.⁷⁾ 그러므로 삶 전반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구성원들의 학습에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는 사회가 바로 평생학습 사회인 것이다.

종래의 교육은 정형화되고 제도화된, 학습자보다는 가르치는 교육자가 주체가 되는 타율적이고 외생적인 제한된 의미에서의 교육이었다. 또한 학습자는 주로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었다. 따라서 전 인생의 절반이 넘는 성인기의 학습자는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성인이 되어서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해 왔으며, 또한 배우고 싶어도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 기회가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학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생애주기가 똑같이 중요한 학습의 주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평생학습론이 제기되면서 열린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이같은 변화의

7) UNESCO(1996), *Learning :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 Author.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과 관련한 제안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의 실정에 알맞은 평생학습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며,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탄력성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주요국의 정부들도 평생학습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교육체제를 유연성 있게 바꾸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과감하게 이른바 '열린교육체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사회가 평생학습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외적 요인으로 교류단위의 지구촌화,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성인인구와 고령인구의 증가, 사회·경제적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교육내적 요인으로 교육장의 다양화, 교육수요의 증가, 교육소재의 다양화, 학습자 중심교육으로의 전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1. 교육외적 요인

1.1 교류단위의 지구촌화

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국제간의 이해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주었으며 인간 생활양식을 세계화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각국이 선린우호 관계나 교역관계를 통하여 제한된 나라들과의 교류를 유지해 왔으나 냉전체제와 이념적인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와 더불어 무역장벽이 철폐 또는 완화되면서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교류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정치, 경제, 문화부문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에서의 교섭력 또는 비교우위가 국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위성방송으로 세계 주요국의 방송을 전 세계가 동일 시간대에 시청하는 한편, 인터넷 상거래로 물리적인 국경이 허물어져 국제화·세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계질서를 재조정하고 재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세계무대 속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지구촌화의 흐름 속에서는 소수의 몇몇 정치인사, 정부인사, 문화계인사 또는 기업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기술을 갖추어 세계인을 대상으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편 인구, 환경, 범죄, 핵전쟁과 같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와 위협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지구촌 시각에서 공동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전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규범이나 공통적인 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세계인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세계인의 평화와 번영, 지구에 대한 책임의식, 세계시민 의식 등의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OECD, UNESCO⁸⁾를 중심으로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모든 인류가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되어 각국에서는 외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성, 외국인에 대한 우호·친선의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한 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실시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힘에 의해 자국의 미래가 좌우되어 결국 종속적 관계가 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된 사회에서의 교육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한 방법도 가르쳐야 하며 정치, 행정, 산업, 기술, 문화 등의 제부문에서 일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도 길러내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가 하나의 지역적 공간으로 바뀌는 지구촌화 사회에서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쟁과 공존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자체를 유연성 있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기존 교육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1.2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새로운 지식이 확산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 산출력과 지식활용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다양한 정보

8) UNESCO(1997),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Final Report*. Paris : Author
World Bank(1999), *Knowledg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 Author

의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지식정보화의 지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보공유의 미흡으로 인한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한편 Fay, McCune과 Begin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조직원은 기계 속에 파묻혀 소모되는 조직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80%의 미국인구가 정보산업에 종사할 것이며, 이는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산업시대에서 인간자원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기 때문에 일과 배움과의 연관 또는 일에 대한 훈련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형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자체로 중요한 교육의 소재가 되고 있다. 요컨대,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화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해야만 그 사회에서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과 활용을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문맹을 해소하고자 종업원을 위한 현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⁹⁾

정보기술의 발달은 학습자의 학습기회를 확장하고 학습효과를 증진시키지만 비용증가를 가져온다.¹⁰⁾ 따라서 평생교육에서는 교육에의 접근(access), 결과(outcomes), 비용(costs) 3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또 다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3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에서의 활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양질의 지식과 기술산출력, 그리고 그것의 활용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양질의 지식과 기술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단순히 학력(學歷)이나 학벌에 의해 각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그가 현장 업무처리에서 보여주는 창의력과 새로운 지식

9) OECD(1996b),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 Author.

10) OECD(1996b: 31-32),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 Author.

이나 기술의 활용력에 근거하여 그의 능력을 평가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력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점차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이를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능력이란 것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획득되고 재교육을 통해 발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이동될수록 평생학습에의 필요성은 증대된다. 왜냐하면 능력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서 획득된 지식과 기술, 사회적 행동, 책임감, 진취성 등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기술이 고도화되면 산업사회에서의 인력수요도 변하게 된다. 즉, 보다 많은 학습경험을 가지고 있고, 응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창의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그러한 인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게 된다. 1990년 교육 창의성 재단(Creative Education Foundation)이 세계의 주요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미래의 기술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협동정신(teamwork),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 인간관계기법(interpersonal skills), 의사소통력(oral communication), 남의 이야기듣기(listening), 직업적 발전(career development), 창조적 사고 능력(creative thinking), 지도력(leadership), 목표설정과 동기부여(goal setting/ motivation), 작문(writing), 조직력(organizational development), 계산력(computation), 읽기(reading) 등을 미래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기술로 들고 있다.¹¹⁾ 이러한 기술들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평생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발휘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요컨대, 미래 직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학습이 아니라 평생동안 계속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불가피한 것이다.

1.4 성인인구와 고령인구의 증가

OECD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낮은 인구증가율과 인구의 고령화이다. OECD국가에서 출산의 기피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11) Longworth, N. & Davis, K.(1996), *Lifelong Learning*, London : Kogan Page.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에 27.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OECD, 1996b: 31).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학령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6.8%에서 2020년에는 1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²⁾

Cross(1981)에 의하면 과거에는 제2차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장 큰 나이 집단을 이루어 왔으나 2000년에는 30~44세의 연령층이 가장 큰 집단이 되며, 45세에서 64세 사이에서 상승곡선이 나타난다고 추정하였다. 이같은 미래 사회에서의 성인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작업환경과 노령인구의 증가 역시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성인들은 자신의 여가활용과 자기 발전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며, 노년층은 경제적인 목적보다 여가시간의 활용과 건강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학습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OECD국가에서는 이들이 삶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직업 세계에서 전문적 기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책무가 되고 있다.

1.5 사회·경제적 생활양식의 변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요인은 각 개인의 생활양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즉, 교류단위가 지구촌화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경험영역을 확대해야 하고, 획득하고 활용할 정보의 양이 급증함으로써 부단히 계속교육에 참여해야만 한다. 또한 사회가 능력을 더 중시하게 됨에 따라 안일하게 졸업장을 갖고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재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여가시간의 확대와 노년기의 연장으로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고 노령의 시기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무엇인가 계속해서 배우고 학습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미래 사회에서 각 개인은 기존의 인식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 대세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12) OECD(1997),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 The New Role of Governments*, Paris : Author.

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각 국은 학습자가 어떤 시기나 장소에 있는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교육 내적 요인

2.1 교육장의 다양화

교육의 장은 크게 세 가지, 즉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교육은 학교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학교가 좁아져야 할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정에서의 교육은 학교에, 학교에서의 교육은 사회에 영향을 끼쳐왔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은 학교 교육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며 암암리에 TV나 신문 등을 통해 배우게 되는 사회교육은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민교육의 효과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교육은 형식적 채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무형식적·비형식적 채널을 통해서 늘 평생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사회는 각각 교육의 장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될 때 각각이 가지는 교육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고, 경제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며,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필요하고, 여론의 제시와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교육이 필요하다. 즉, 사회 모든 부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의 모든 생활장소가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컨대, 미래 사회는 사회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어 교육력을 발휘하고, 모든 구성원이 학습에 참여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2.2 교육수요의 증가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 작업 환경의 변화는 계속교육 또는 순환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

는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여가활용이나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기 위한 교육수요 역시 점점 증가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정규 학교교육의 연령제한이 불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연령층에 있던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원하면 이들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체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요의 증가는 단순히 인구상의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필요의 다양화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책무가 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국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되고 있다.

2.3 교육소재의 다양화

국가에서 제시하는 공통 교육과정이나 표준화된 내용만 교육의 소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험하는 내용이 모두 다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의 소재는 학문적인 것에 한정되어 왔으며, 비록 비학문적 내용이 교육의 소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문보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삶과 괴리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력 낭비와 학습자 차원의 학습력 낭비, 나아가 교육소의 현상을 초래해 왔다.

인간이 학습을 통해 구성해낸 세계는 대단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다. 인간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각 개인은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이 다를 뿐 동일하게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학습영역만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상대주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현대세계는 절대주의적 지식관보다는 상대주의적 지식관이 적용되는 세계이다. 따라서 다양한 삶의 영역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교육의 소재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만 학습이라는 생각은 구시대적 인식인 것이다.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배우는 내용은 교육소재의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청소년이 학교 이외의 영역에서 하는 학습경험과 그 경험의 대상이 되는 교육의 소재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또한, 학교를 떠나서 생활하는 성인이나 노인들이 하는 학습경험과 그 경험의 대상이 되는 교육의 소재 역시 도외시 할 수 없다. 교육의 소재는 학습을 통해 삶의 영역을 확대하고 삶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생을 통해서 접하는 영역이 동등하게 교육의 소재가 된다. 이에 따라서 평생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4 학습자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근대 이후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사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을 하고, 학생은 이에 따라 교육을 받고, 학부모는 이에 따라 교육을 지원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교육재정을 조세의 형태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교육의 결과는 학생의 학습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책무성과 교사의 책무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교사, 학부모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력이다. 따라서 학생이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습에 조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곧 학습자중심 교육을 의미한다. 물론, 이전에도 학습자중심 교육의 이론이나 관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습자중심 교육은 교육의 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물론 미래 사회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주체는 학습자이고, 그의 학습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확보되므로 학습자 중심교육은 새롭게 중시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어떤 생활경험을 하고 있든, 그 경험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교사의 책무이다. 그리하여, 학습자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평생 학습 사회의 구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에서 미래 사회에서 평생학습이 불가피하게 될 교육 내·외적 요인을 살펴해보았다. 이미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받은 인간상은 최첨단의 지식 또는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여유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유연하게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나갈 능력이 있는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상은 평생학

습을 생활화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한편,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기관상은 다양한 생활영역을 교육의 장과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고, 전 국민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학습자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상은 평생학습을 위한 열린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평생학습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평생학습이 보편화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Ⅲ. 평생학습사회 실현

지식·정보의 폭증,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학력 위주 사회의 쇠퇴, 전 국민의 기초학력 향상 및 사회적 성숙 등으로 인해 학교교육 위주의 체제에서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평생학습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교육체제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신교육체제의 비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복지 국가(Edutopia)를 건설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 World Bank, UNESCO 등에서도 지식기반경제 사회 도래에 따른 핵심전략으로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 예로 금년 6월 G-8펠른 정상회담에서는 '평생학습에 관한 쾰른헌장'을 채택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 동향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평생교육연구개발, 평생교육종사자연수, 평생교육정보 서비스제공 등의 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자유시간의 증대,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전국민의 평균 학력 향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교육욕구가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상향 평준화시키고, 지식기반경제사회를 주도할 인적자본개발체제 정비가 요망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제4차 교육개혁 방안(1996. 8. 30)을 통해 교육부 산하에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교육 실천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교육계좌제도의 기획, 사회교육연수, 사회교육 종합연구, 평생교육 학술자료·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평생교육법’(법률 제6003호, 1999. 8. 20)을 제정·공포하였으며, 동 법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교육 전반을 규정짓는 모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즉, 평생교육법은 정규 학교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관계법령 등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법률로 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 31일 사회교육법이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법적·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를 맞이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새로운 틀의 법령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또한 교육공급자 중심의 닫힌 사회교육체제를 수요자(학습자)중심의 열린 평생학습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새로 마련된 평생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직장인들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한 자아실현과 안정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유·무급학습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의 종합 연수·연구 및 정보센터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시군구·읍면동단위 평생학습관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중심 보다는 학습자에게 공공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주의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사내대학을 양성화하여 전문대 및 대학의 학력·학위인정을 부여하고, 방송, 케이블TV, 정보통신 매체센터 등을 통한 방송통신교육의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산·학·연·관 협동학습체제와 연계하여 직장 내 학습과 재택 학습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원격대학, 원격연수원, 원격학원 등을 통한 21세기형의 다양한 학위과정과 비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국내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간에 원격교육을 통해서 전문대 및 대학과정의 학점 및 학위 등을 상호 인정하여 원격교육기회를 확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도자기(청자, 백자), 소리(창) 등 우리민족 전래의 전통문화예술 등에

있어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명인 등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문하생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민간자본의 교육훈련, 연구용역, 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지식정보제공 등 교육훈련산업에 투자를 촉진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전문 인적자원 등을 대학의 시간강사, 각종연수기관의 강사요원, 적성특기교육활동의 강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사정보은행제를 신설하고 있으며,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관리하는 교육계좌제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간자원을 개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및 평가 업무 전담과 교수역할을 추가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육담당자를 양성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수준에 평생교육센터를, 지역수준에 평생학습관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평생교육센터,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 및 지역교육정보센터의 관계와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중앙에 설치되는 평생교육센터는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는 평생교육 연구·연수·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는 정책결정자가 신뢰로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연구는 지식을 창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의 기본 계획수립,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인학습 참여 촉진, 교육계좌제 운영, 전통문화의 활성화, 취약계층 참여 촉진, 사이버 평생교육체제 구축, 평생학습 기금 조성,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촉진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통해 평생교육 연구를 통한 지식의 창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교육계좌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므로 근로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서 지식을 계속적으로 습득해야 하고, 이들의 평생학습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학습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부여하고, 학습투자를 확대하며, 평생학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교육계좌제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계좌제는 국민의 평생교육, 특히 취업자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학위·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하여 누적 기록·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또한 교육계좌제는 교육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의 근거자료 내지 취업자를 위한 교육 재정 지원 장치로도 활용된다.

둘째, 연수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하게 하여 성인학습자에게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연수는 지식 일꾼을 양성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 평생교육 교수 요원 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원 연수, 정보 서비스 요원 연수, 평생교육기관 최고 경영자 연수, 외국인 위탁 연수 과정 등의 개발·운영을 통한 평생교육기관 요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셋째, 학습자에게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 국가에서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하도록 하고 각 개인의 삶의 질 상향 평준화를 도모한다. 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생성·수집·제공, 각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센터 총괄 지원, 전국 평생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전자도서관 운영, 강사정보 은행제 운영, 교육구좌제 운영 등을 통한 사이버 평생교육 체제 구축.

넷째, 국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한 글로벌 평생교육센터로서 발전하도록 한다. World Bank, UNESCO, OECD, APEC, ADB, IEA 등 국제기구들과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및 위탁 연수를 수행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센터사업 기획·조정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한다. 평생교육센터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되 컨소시엄 기관별 사업이 전체 센터 사업으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인 평

생교육연구 전담기관에 평생교육센터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연구소에서는 기초조사연구, 정책·제도연구, 자료개발연구 및 센터 사업기획·조정을, 평생교육연수원에서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연수 운영을,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는 평생교육정보 수집·가공·제공을 주업무로 수행한다.

IV. 평생학습 사회실현 기능과 역할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는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행·재정 지원을 담당한다.

현재 중앙조직으로는 교육부 평생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에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건복지, 문화학교, 직업훈련원 등은 일반행정기관이나 중앙 부처의 지역 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제와 통합될 경우 이들간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체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평생교육원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행·재정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 적극적으로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관한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광명시 평생학습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좋은 모델

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평생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대우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인정,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승급 기회부여, 유급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평생학습의욕 고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격려해야 한다. 또한 관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들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과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 증진에 노력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 정부 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가칭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습자수에 비례하여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다.

다섯째 평생학습을 위해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학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정보를 윈스톱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노력이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고 시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적인 평생학습 사회를 건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및 평생학습 정보를 시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용·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길 것이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평생학습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시청과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견지되어야 하겠다.

첫째,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의 정보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 진흥(지원)과나 평생학습진흥(지원)계를 설치하여 앞서 살펴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시청내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여성, 문화, 민간조직 지원 등 평생교육 업무를 여기서 관장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생학습진흥과와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의 구심체 기관으로서 단위 지역의 모든 평생교육기관들과 평생학습자들에게 신속한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진흥위원회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 기능에 따른 지원 및 지시·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평생학습진흥위원회는 평생 교육기관, 지역경제 단체, 관련 학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 강구, 교육비 확보, 관련 기관(학교, 기관, 기업체 등)의 교육장 확보 등을 심의 조정한다. 또한 동의 광역화 내지는 동사무소 폐지에 따라 동사무소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의 활용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고취시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주간을 제정·운영한다. 평생학습 주간은 직접주관하기보다는 민·관·학 공동으로 구성된 평생학습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진흥과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넷째, 광명시의 행정관청, 평생교육기관, 가정 등을 하나로 묶는 가칭 평생학습망을 구축·운영한다. 광명평생학습망은 향후 EDUNET에 연결하여 운영될 예정인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망과 연계·운영되도록 한다. 평생학습망의 구성은 관할관청에서 담당하고 운영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가구당 1개씩의 ID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행정관청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한다.

일본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 있다. 문부성과 각 자치단체 별로 연계·협력하여 평생학습 정보의 제공과 학습상담을 실시하는 '평생학습 정보 제공 시스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1996년까지 42개 도도부현에서 평생학습 정보제공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도·도·부·현 평생학습센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PC 통신 또는 이용자용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정보검색 및 학습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습정보 데이터베이스는 ① 학습기회(학급·강좌내용·장소 등), ② 시설(사회교육 시설의 이용방법 등), ③ 단체(활동 내용), ④ 지도자(강사의 지도 내용 등), ⑤ 학습교재(시청각교재의 이용방법 등), ⑥ 각종 자격(국가자격·기능검정의 종류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신지식인 운동 차원에서의 성인 컴퓨터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에 컴퓨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공공교육기관부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 해방 후 범국가적으로 벌였던 문맹퇴치교육과 마찬가지로 일반학교에 성인 컴퓨터 교실을 운영 하는 등 대대적인 컴퓨터 문해교육을 전개한다.

V. 결 론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학교중심 교육체제에서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미 상식으로 되어 있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ission)에서는 1996년을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하여 유럽 각국으로 하여금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정책을 계획·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OECD(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도 1970년대부터 평생학습을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과 직업간의 순환관계에 의해 계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최근에는 교육부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평생학습을 주요안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UNESCO 역시 1995년부터 1998년까지를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인간 발달과 평화를 위한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해 왔다. 또한 G7 국가들도 평생학습의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LLI(the European Lifelong Learning Initiative), WILL(the World Initiative on Lifelong Learning)와 같은 새로운 조직체에서도 평생학습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시키고 있다.

“평생학습은 21세기를 대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말은 1996년 OECD 교육위원회 개최사의 첫 구절이다. OECD 국가들은 평생학습을 실업문제의 해결, 국가의 경쟁력 향상, 개인의 창조력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 교육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OECD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The Fourth Meeting of the OECD Education Committee at Ministerial Level)에서 제안하고 있는 평생학습 사회의 방향은 한 마디로 특정한 영역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사회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 학습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전역을 평생교육장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될만하다. 향후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게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평생학습도시는 관에서 단순히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꾸준한 지원과 격려가 있어야 하겠다. 교육은 단시간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경우는 꾸준한 노력과 새로운 지식을 흡입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수도권 도시가 그렇듯이 주거와 직장이 다른 행정구역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도 주간, 야간을 골고루 개설하여 학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학습을 위한 행정체제는 지시·감독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을 수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제공,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확보 등의 지원기관이 되어야 한다. 특정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이 있다면 시청 등의 관공서 시설 제공, 관내 사용가능한 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평생학습을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다. 개별 공무원별 평생학습카드를 만들어 교육활동 결과(평생학습 강사 및 수강)를 기재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더욱 적극적으로는 평생학습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섯째, 평생학습 DB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모든 학습 결과를 관리한다. 평생학습 관리는 학습수준(초등학교단계, 대학단계 등), 학업성취도, 총수업시간 수 등을 기재한다. 이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향후실시예정인 교육계좌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평생학습 결과에 의한 취업과 연계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주부 등을 위한 취업 및 여가교육 활동 제고, 평생학습 지원 및 상담 원스톱제 운영,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카드 발급, 사이버 평생학습체제를 구비하여 인터넷에 의한 평생학습 지원 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1. 강영철(1999),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 편.
『지식기반국가 건설과 창의적 인적자원 개발』,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
2.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3. 김영철 외(1999),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방안』, 한국교육개발원.
4.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팀(1998), 『지식혁명 보고』, 매일경제신문사.
5. 매일경제신문사(1999), 『OECD-세계은행 지식경제 세미나』, 매일경제신문사.
6. 설양언(1999), 지식사회에 대비하는 정책방향, 중앙공무원교육원(편), 『지식기반국가와 신지식공무원』, 53-93.
7.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8. 최돈민 · 이해주 · 윤여각(1998),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열린교육 체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9. 한국개발연구원 외(1999),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10. Atchoarena, D.(Ed.) (1995), *Lifelong Education in Selected Industrialized Countries*, Paris : OECD.
11. Bell, D.(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 Basic Books.
12. DfEE(1998), *The Learning Age a Renaissance for a new Britain*, London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13. Drucker, Peter F.(1994),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 Harper Collins Publishers.
14. _____(1999),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 Harper Business.
15. Foray, D. and Lundvall, Bengt-Ake(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 From the Economics of Knowledge to the Learning Economy*; In OECD,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 : Author.
16. Karp, P.(1999), Towards a Knowledge-based Economy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OECD, OECD-World Bank seminar on Knowledge-based Economy, Seoul : Mimeo.
 17. Longworth, N. & Davis, K.(1996), *Lifelong Learning*, London : Kogan Page.
 18. Machlup, F.(1962, 1982, 1984),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I , II, III, Princeton : University Press.
 19. Malkin, D.(1999), The Knowledge-Based Economy Trends and Policy Challenges; In OECD, OECD-World Bank Seminar on Knowledge-based Economy, Seoul : Mimeo.
 20. Neef, D.(1998), *The Knowledge Economy : An Introduction*; In Dale Neef (ed). *The Knowledge Economy*, Boston, MA : Butterworth-Heinemann. 1-12.
 21. OECD(1996a),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 Author.
 22. OECD(1996b),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 Author.
 23. OECD(1997),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 The new Role of Governments*, Paris : Author.
 24. Prusak, L.(1998), *Why knowledge, why now?*; In Dale Neef.(ed.), *The Knowledge Economy*, Boston, MA : Butterworth-Heinemann.
 25. Tapscott, D.(1995), *The Digital Economy : Promise and Peril in the age of Networked Intelligence*, New York : McGraw-Hill.
 26. Thurow, Lester C.(1999), *Building Wealth*, New York : Harper Collins Publishers.
 27. Toffler, Alvin(1980), *The Third Wave*, New York : Bantam Books.
 28. _____(1990), *Power Shift*, New York : Bantam Books.
 29. UNESCO(1996), *Learning :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 Author; 김용주 외(역)(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오름.
 30. UNESCO(1997),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Final

Report, Paris : Author.

31. World Bank(1999), *Knowledg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 Author.

32. www.lifelonglearning.co.uk/greenpaper/index.htm

33. www.monbu.go.jp/aramashi/1997jpn/kyouiku/210.htm

Abstract

A Study on Lifelong Education From a Foundation Knowledge Economic Social

Kim, Kap-jong

The future social makes an multipule effort to secure native competi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oresee the length and deepest on the future social coming soon than human beings has experienced until now. The future social will be adopt a positive attitude on lifelong education ,also, because It will be rapidly change. Like this foundation knowledge economic will be secure which a knowledge is high value and build up a fortune.

Now, new sight for education is necessary definitely to a person. In the future, labor viability is utterly dependent on what the lifelong educations ability is.